

김근태 선배님의 추억

대학 2학년인가 3학년 때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얼굴이 유달리 하얀 자그마한 체구의 복학생 한 사람이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교 3년 선배님이신데, 민주화 데모에 연루되어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김근태'라는 이름 석 자가 운동권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데모를 열심히 했을 뿐이지 운동권의 핵심세력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운동권이라는 것 그 자체가 그리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구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통치가 점차 강화되면서 운동권도 차츰 조직화되어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배님은 세 살 정도 어린 우리들과 허물없이 잘 어울리셨습니다.

운동권이라는 인상을 전혀 풍기지 않고 그저 평범한 복학생 중의 하나이셨습니다.

우리 경제학과 학우들은 그때 틈만 나면 농구장으로 달려갔는데, 선배님도 늘 우리와 함께 뛰셨습니다.

선배님이 슛을 하려는데 내가 그 분 바짓가랑이를 잡고 반칙을 가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루는 농구를 끝내고 강의실로 향하는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나는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늘 그러듯, "선배님 콜라 좀 사주세요."라고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선배님은 정색을 하시더니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나는 그때의 선배님 얼굴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중에 안 것이었지만 선배님은 용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주머니에 교통비조차 제대로 없는 터에 후배가 콜라 사달라고 어리광을 부리니 얼마나 곤

혹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어리광을 피워 선배님을 곤혹스럽게 만든 내가 몹시 부끄럽더군요.

십여 년 전 선배님, 정운찬 선생님,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님은 정운찬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장학금 양보해준 일을 기억하고 그때 너무 나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후배의 장학금을 양보 받아 학교에 다니셔야만 했을까요.

데모가 있거나 하면 선배님은 언제나 열심히 참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데모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전에 고백했듯이 학생 시절의 나는 변변히 데모에 참여해본 적이 없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 내가 얄미울 만도 한 일인데, 선배님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언제나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둘은 그저 평범한 선배와 후배로 어울리고 다녔는데, 가끔씩은 무슨 책을 읽으면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밀(J.S. Mill)의 『자유론』을 읽어 보라고 적극 권한 일이었습니다.

항간에 그 분은 좌파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걸핏하면 간첩 혐의로 피신해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그때의 선배님은 결코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좌파 서적을 읽어 보기를 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그 책을 열 번이나 읽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까지 흘렸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많은 사람들은 김근태라는 이름에서 강인한 투사의 이미지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선배님은 『햄릿』을 읽고 눈물을 흘릴 만큼 감수성이 예민하고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한 동안 평범한 복학생으로서 생활하시던 선배님이 4학년 때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어느 시점인가에서는 아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어 아예 잠적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무슨 시국사건이 있어 그 분이 연루되어 있었는지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을 치안국 형사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치안국은 요즘으로 치면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김근태 씨와 친하지 않느냐고 묻더니 내일 치안국 후문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 나갔더니 형사 두 명이 앉아 있다가 나를 보더니 대뜸 “너희 집에서 김근태 며칠 재워 줬니? 다 알고 있으니 정직하게 말해라.”라고 다그치더군요.

“며칠이라니요? 전 최근 그 선배님 본 적도 없는데요.”라고 항변하자 다음에 눈에 띄면 우리에게 즉각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그 형사들이 나에게 신고하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둘 중 비교적 표정이 온순한 한 형사가 나에게 전화번호를 내밀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라고 말하더군요.

마치 자신들도 내가 신고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 용건을 전달하고서도 나를 그냥 보내주진 않더군요.

치안국 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어떤 방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거기서 삼십 분 정도 앉아 있다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공포 분위기 속에 몰아 넣어 주눅이 들게 만드는 수법이지요.

그 뒤로도 나는 선배님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당국의 접촉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이 간첩 혐의로 수배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간첩으로 몰아 박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매장시킬 때 간첩이란 누명을 씌우는 것처럼 편리한 방법이 없지요. (요즈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좌빨'로 모는 것은 그때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라고 보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나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학과 학우 중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근태 선배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제학과 학우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말을 잘못해 치도곤이를 맞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포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더군요.

"너 나가서 네가 당한 것 얘기하고 다니면 죽는 줄 알아라."라는 식의 위협을 받았을 게 뻔한 일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야 그때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았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선배님의 존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분 자신도 계속 도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대 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한 번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수배 중일 텐데 어떻게 서울 도심에 활보하고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요즈음은 조금 느슨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지금도 아쉬운 것은 그때 선배님 사정이 딱하셨을 텐데 따뜻한 점심 한 끼도 대접해 드리지 못한 일입니다.

어린 나로서는 그 분에게 용돈이라도 얼마간 쥐어 드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은 내가 곧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공부 많이 하고 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일에 계속 관심을 갖기를 당부하시더군요.

1984년 귀국해 보니 선배님은 이제 수면 위로 나와 운동권의 대부로서 활약하고 계시더군요.

그 분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신 것이 1985년이라는데 당시에는 그 사실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최근에 그 분을 고문한 형사의 회고담을 신문에서 읽고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겁만 주었을 뿐 정말로 고문한 적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선배님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고문을 자행한 사람에게 눈곱만큼 정상을 참작해줄 여지는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 자신의 직책을 내놓고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힘들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문을 자행한 행위는 어떤 구실로도 용서 받을 수 없고, 더군다나 그 고문의 피해자에게는 무슨 말로 사과를 해도 충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생 내개 참회의 삶을 살아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고문을 하지 않고 겁만 주었을 뿐이라고 발뺌을 하니 가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묻고 싶네요.

선배님이 국회의원 하시고 있던 시절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국민의 정부가 일을 시시하게 한다고 비판했더니 선배님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 정부 안에 개혁을 탐탁해 하지 않는 세력이 있고, 그 친구들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에 공감이가더군요.

나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 왔습니다.

어느 누가 대권에 도전한다 해도 그 사람을 도와 무슨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근태 선배님이 대권에 도전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 말을 100% 지킬 자신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을 때 내가 야박하게 그 손을 뿌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아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도움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그 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나 자신의 약속을 저버릴 만큼 그 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난 사람들이 그 분의 진가를 몰라주는 것이 아주 답답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배님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주의자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신념이 그 분의 정신세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듯 과격한 분도 아닙니다.

그 분이 활동이 다소 과격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격성은 독재정권이 강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밀의 『자유론』에 심취해 있던 온건한 자유주의자를 끊임없이 압박해 과격한 운동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내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적으로 그 분이 후배인 나에게 보내주던 따뜻한 시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를 꾸짖지 않고 사회의식을 갖도록 부드럽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눈 감고 상아탑 속에 안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그 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지도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실제의 그 분은 세상에 떠도는 평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언론의 왜곡 보도이든 혹은 단순한 무관심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모습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도덕이 실추되어 버린 이 암울한 세상에서 그 분의 완벽한 도덕성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어렵게 쌓아놓은 민주화의 토대가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민주화에 대한 그 분의 끈질긴 열망은 우리가 차마 놓을 수 없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였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치가로서의 김근태 선배님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김근태 선배님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 없이 맑은 심성의 소유자이며,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인 그 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배님의 한 점의 티 없이 호수처럼 맑은 눈길이 새삼 그리워집니다.